



◀ 양돈협회 울산지부 사무실 전경. 지난 2001년도에 울주군이 축산분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축산회관이 설립되었고, 2003년 9월에 양돈뿐만 아니라 한우, 양계, 양봉, 양로, 낙농 등 전 축종 생산자단체가 입주하였다.

## 돼지출하 및 분뇨수거차량 공동 운영하는 경남 울산지부

취재 : 정재은

경남 울산지부(이상국 지부장, 만 48세)는 회원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분뇨수거차량과 돼지출하차량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으로 균일한 비육돈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울산지부는 타 지역에 비해 울산시·울주군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올해 백신 및 소

독약품과 기자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농가가 함께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질병 차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부는 협회 회비 납부와 TV 홍보비,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성금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여러 조사업무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관내 불우 이웃에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식회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 경남 울산지부 이상국 지부장

### 울산 양돈산업의 구심체로 자리 잡은 울산지부

울산지역 양돈산업 발전과 양돈인의 지위 향상, 권익 보호를 위해 1983년 3월 9일 울산·울주지부가 설립되었다. 이후 1992년

12월 23일부터 1996년 11월 25일까지 4년 정도 울산지부가 따로 분리되었다가 1996년 11월 26일 다시 통합되어 울산지부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울산지역에서 84농가가 5만1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전업농가 39농가가 4만4천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전업규모 농가는 전부 지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제12대 이상국 지부장(10대 지부장 역임), 전강민 부지부장, 김주열·박정수 감사, 송규식 총무, 이규진·이경학·정만광·최병두·한기순·황남도·황수동 운영위원 등 1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비용절감 사업과 행정과의 협조 아래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회원들은 단합하여 양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지부사업 전개

울산지부는 분뇨수거차량, 돼지출하차량,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분뇨수거차량 운영을 통해 톤당 500원의 분뇨처리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월 1,200톤이 수거되고 있으며, 1년 동안에 720만 원이 절약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 기사가 하루에 2~3번에 걸쳐 수거를 해가고 있다. 한편 2003년도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30만평 과수(배)단지에 200톤 액비탱크 3기를 설치하여 액비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양돈인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분뇨처리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돼지출하차량을 운영하여 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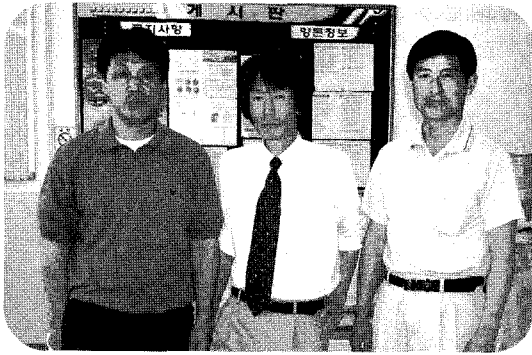
▲ 분뇨수거차량 운영을 통해 톤당 500원의 분뇨처리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돼지출하차량을 운영하여 두당 1,200원 비용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200원 비용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월 2,000두 정도를 이 차량을 통해 출하하고 있으며, 1년간 2천880만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지역 양돈농가 출하차량을 일원화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질병유입 차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분뇨수거차량 및 돼지출하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배차 간격, 결산 및 수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

또한 울산지부는 1996년 11월 5일부터 돼지인공수정센터(울산AI센터)를 통해 정액을 농가에 원가로 판매하고 있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일반농가와 회원농가에 차등을 두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복당 4,000원 절약으로 연간 2천만원 수준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균일한 비육돈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울산지부에서는 회원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는



▲ 좌측부터 울산지부 송규식 총무, 이상국 지부장, 전강민 부지부장



◀ 울산지부 우해숙 간사

1년에 2~3번 정도 기자재를 공동 구매해 원가에 공급하기도 한다.

##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지원 이끌어내

울산지부는 행정기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타지역에 비해 울산시·울주군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올해 돈열, TGE, PED, 기생충구제약, 매개체구제약 등 백신 및 소독약품 2억3천만원 정도를 방역비로 확보하였다. 또한 톱밥, 환경개선제, 축사방방기,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 등 기자재에 관해 1억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울주군 축산과 가축위생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시험소, 농가가 함께 공동으로 철저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도에 울주군이 축산분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축산회관이 설립되었고, 2003년 9월에 양돈뿐만 아니라 한우, 양계, 양봉, 양류, 낙농 등 전 축종 생산자단체가 입주하였다. 커다란 회의실도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시책 개선 및 축산 예산 선정 등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 전 축종이 단합하고 있다.

## 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부 운영 및 월례회의 개최로 정보 제공

울산지부는 내부 규정 및 방침을 정해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임원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며, 회원들이 참석하는 월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있다. 회비는 월 1만원, 연간 12만원이며, 월례회의에 연속 2번으로 빠지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회원별로 지부 행사 참석 현황 등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월례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필요시 협회장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003년의 경우에는 6월 24일 협회장 및 부회장, 울산지부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 양돈산업 비전 제시와 양돈산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 시식회·불우이웃돕기 행사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분위기 주도

울산지부에서는 불우이웃 돕기나 무료시식회 행사를 매년 꾸준히 전개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양돈인들의 지위 및 양돈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 17일에 권기술 국회의원, 김춘생 울산시의원, 김지호 울주군의원 등과 함께 성애원, 동향원, 애리원 등 관내 사회복지단체에 돼지고기 600kg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지난 2003년 10월 5일 황우쌀 축제 행사 때 돼지고기 수출부위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수출부위 소비촉진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난 2004년 5월 18일에는 춘계 야유회를 통해 회원들과 부인들, 축산관련 기관 및 업체 관계자들이 단합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현실에 맞는 정책수립 및 지원이 뒤따라야

울산지부 임원진은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행정과 끊임없는 교섭을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협회가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국 지부장과 전강민 부지부장은 “축산 현실에 맞지 않는 거리감 있는 정책수립 및 지원이 아닌 농가의 아픈 현실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TGE 단일백신이 아닌 PED 해결이 가능한 혼합백신, 돈열과 단독의 혼합백신 제공이 이루어지고, 혹서기에 대비해 냉방기 시설 지원에 제한하지 말고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돈산업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취적인 태도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협회는 양돈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하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



▲울산지부는 지난 1월 17일 관내 볼우이웃에 돼지고기를 전달하였다. (위 사진)좌측에서 두번째부터 권기술 국회의원, 이상국 지부장, 전강민 부지부장, 성애원 원장 (아래 사진) 좌측에서 두번째부터 애리원 원장, 정대화 울주군 축산과장, 이상국 지부장, 김춘생 울산시의원, 김지호 울주군의원



▲지난 2003년 10월 5일 개최된 울산지부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협회는 지부에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나감으로써 양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부장은 “차조금 사업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돈**